

2025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개최

미디어아트 분야 국제 교류와 협력의 장... 미디어아트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시의 비전 담아

광양시는 2025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14일간 광양시 전역 8개 전시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은 지난해 첫 포문을 연 행사로, 광양시와 오스트리아 린츠시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가 협력을 본격화하면서 '광양-린츠 미디어아트 교류 사업'이 시작됐다.

올해 2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과 국제 교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광양이 미디어아트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페스티벌의 주제는 '나선으로 나아가는(Cycloidal Creatures)'이다. 사람과 사물, 인공과 자연, 감각과 기억이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로 맞물리는 순환 구조를 탐구하며, 기술을 매개로 한 예술적 상상력의 확장을 제안한다.

개막식은 10월 22일 오후 7시 광양시청 앞마당에서 열린다. 이날 축하공연과 함께 시청사 및 중동 e현해상아파트 외벽을 활용한 대규모 미디어아트

사드 연출이 펼쳐진다. 이번 개막식은 빛과 소리가 어우러진 장관을 통해 미디어아트 도시로 도약하는 시의 비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시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서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시는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아트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역사적 명소와 일상 공간을 전시장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전시장은 광양예술창고, 인사리공원, 예담창고, 서울대 남부연습관, 광양수산물유통센터, 성황스포츠클럽 다목적체육관, 가야아트홀 8개소로, 국내외 작가의 작품 34점이 전시된다. 구성은 ▲주제전 5점 ▲특별전 4점 ▲남도영화제 연계전 5점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애니메이션 20점이다.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순천대학교 5개 대학이 참여해 미디어아트와 애니메이션 분야의 우수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페스티벌 기간에는 관람객과 시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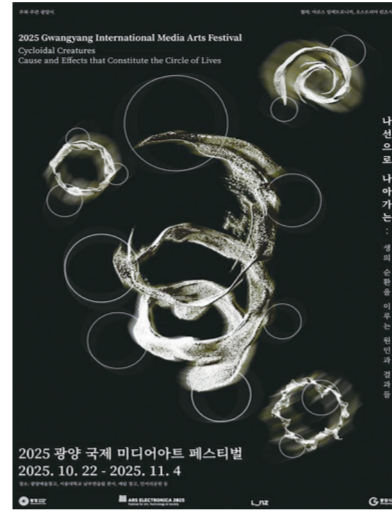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먼저, '미디어아트 포럼'이 10월 24일 오후 2시, 성황스포츠클럽 다목적체육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미디어아트 분야) 발전 방안 연구'와 '광양, 창의적 미디어아트 국제관문도시로의 모색'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광양시의 미래 비전과 미디어아트 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또한 전시 현장에서는 큐레이터 투어가 진행돼, 관람객들이 작품에 담긴 주제와 의미를 전문 해설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남도영화제 시즌2와의 연계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더해져, 이번 페스티벌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예술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장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통해 시민들에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현대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광양시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의 자세한 일정은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과 공식 인스타그램(@gwangyangmediaartsfestiv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책과 함께 북적북적한 하루를... 북구, '다북다북 책축제' 오는 18일 일곡제1근린공원·일곡도서관서 주민 참여형 책축제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일곡제1근린공원과 일곡도서관 일대에서 '다북다북 책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북다북 책축제'는 주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해오고 있는 주민참여형 문화 행사이다.

'책과 함께 여는 북적북적한 하루'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지역 내 도서관·독서단체·마을공동체 등 15개의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해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공연 ▲체험 ▲동화 ▲놀이 ▲전시 ▲심 등 총 6개의 마당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계획이다.

먼저 일곡제1근린공원에서는 미술사의 버블&별문선과 일곡중학교 댄스동아리의 댄스 공연으로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문인 북구청장과 최무송 북구의의 의장이 무대에 올라 평소 감명 깊게 읽은 책과 그 이유를 소개하는 '내 인생의 책' 퍼포먼스를 통해



책을 매개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같은 시간 일곡도서관 강당에서는 비룡소 문학상 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최은옥 작가가 초등학교생들을 만나 본인의 저서인 '내멋대로 시리드 그림책'을 주제로 도서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 이후에는 연극배우로 구성된 '도킹 프로젝트'팀의 그림책 입체낭독 공연이 이어져 책을 몸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송현근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11월 1일 오후 3시 30분 전일빌딩 245 옥상정원(전일마루)에서 2025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 독서 토론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의 책' 사업과 연계해 마련된 행사로, 책을 매개로 시민들이 사회문제와 공동체 가치를 함께 생각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2025 '올해의 책' 독서공모전 시상식과 2부 시민 독서 토론마당으로 각각 진행되며, 올해의 책 작가, 청소년, 시민 등 200여 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1부 시상식에서는 그동안 '올해의 책' 함께 읽기에 동참한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독서 운동의 성과를 공유하며 독서 문화 확산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진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올해의 책' 독서 공모전은 전문가와 구민들의 추천으로 선정된 '올해의 책'을 개인 독후감과 가족·이웃이 함께 읽고, 독서 경험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함께 읽는 우리' 2개 부문으로 참여하도록 해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지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 독서토론마당 개최

11월 1일 전일빌딩245, '사회문제와 공동체에 관한 성찰'

난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726명이 참여해 심사를 거쳐 34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심사 결과 부문별 최우수상은 개인독후감 성인부 김태영 씨(대전), 중·고등부 한정아(신광중1), 초등부 문지우(선운초1)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함께 읽는 우리(가족) 부문에 김태리 가족(광주 동구), 함께 읽는 우리(단체)는 조선대부속 중학교(광주 동구)팀이 각각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임택 구청장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한 해 동안 이뤄진 '올해의 책' 독서 운동의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공모전 결과전시는 같은 날 금남로 '차 없는 거리' 행사와 연계해 전일빌딩 245 앞에서 펼쳐진다.

이어지는 2부 독서 토론마당은 '웅크린 말들에 귀 기울이는 사회'라는 주제로 열리며, 2025 '올해의 책'인 백혜영 작가의

'꿈을 꾀는 소녀'와 정진호 작가의 '바나나 가 더 일찍 오려면'을 다룬다.

토론마당 사회는 문학평론가 이소가 맡으며, 백혜영 작가와 함께 청소년, 독서동아리, 주민 대표, 청년 등 다양한 시민들이 패널로 참여해 '올해의 책'을 읽고 느낀 점,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에 관한 성찰, 그리고 책을 통해 바라본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특히 시민들의 생각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사전 모집한 청중 50여 명이 참여해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주제에 관한 생각을 현장에서 나눌 수 있는 열린 토론으로 진행된다. 독서와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네이버폼(<https://naver.me/xlbTcn7>)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책은 나와 우리의 문



제를 돌아보고 성찰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다"면서 "이번 독서 토론 마당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시민이 주체가 돼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적 연대와 실천을 고민하는 인문도시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화순군, 제2회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 대회 본선 개최

오는 25일 오전 11시,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주무대에서 열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제2회 화순군 전국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본선이 오는 10월 25일(토) '2025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주무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지난 9월 1일부터 28일까지 대회 참가자 모집을 진행하여 전국 각지의 재능 있는 청소년 댄스팀 37개 팀이 예선에 접수했으며, 9월 30일 동영상 예선 심사를 거쳐 최종 15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

본선 진출팀은 익사이티드, TAD, T.PLE, IN Castle, DM, 허니베저, Not Yet, 라온쿠루, 시선, 인트로알, 인트로유, O.I(오아이), Team.HARU, VIBE, SUWALIZILLA로 총 15개 팀이다.

본선 경연은 10월 25일(토)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며, 최종 대상 1팀 300만 원, 최우수상 1팀 200만 원, 우수상 1팀 100만 원, 장려상 2팀 50만 원, 참가상 10팀(수상팀 제외) 20만 원이 수여된다.

이날은 댄스 경연 대회뿐 아니라, 향



기로은 가을꽃 분위기를 한층 더해줄 초청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제1회 경연 대회 우승 팀인 광주 '솔리드'의 축하공연과 국내 정상급 스트리트 힙합 댄스 크루 HANYA(한야)가 특별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화순/김종환 기자

보다나온 농어촌

농어촌

지가 있다면
금 바로 가입해야 할

금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담·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